

2004 Summer v.34

밀알

# C o n t e n t s

## Dear to

02

권두언 | 유 석 춘

04

절제 | 김 정 주

## Special well-being

07

웰빙한 삶 | 김 삼 환

10

달리는 즐거움 | 최 수 영

12

참된 웰빙은 | 김 성 걸

14

진정 건강한 사람 | 오수찬

16

웰빙족과 일벌레들 사이에서 | 윤 남 희

19

Better way to run my life a little bit happier? | 백 기 범

22

느리면 될까 | 조 철 민

24

아름다운 요가 | 박 공 주

27

건강 사이트 소개

## People

29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 양 일 선

32

신사임당을 꿈꾸며 | 양 현 주

34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 신 세 영

36

방금 결혼했어요 | 기 선 아

## Information

38

마치 읽은 것처럼 | 문 속 희

40

숲길

42

2004년 1학기 보고서

44

회원 동정

밀알 여름호

2004년 6월 30일 발행 | 제34호 | 발행처 · 연세대학교 여직원회 | 편집 · 여직원회 홍보부

## 웰빙유감

글\_유석춘 사회학과 교수

학부에 재학 중이던 70년대 지금의 본관 건물 연구실에서 씨가를 피우고 있던 박영신 교수의 모습은 그 시절 나에게 엄청난 동경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나에게 담배는 지적 고뇌를 상징하는 '지식인의 표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배에 대한 환상은 나의 인생관에도 큰 영향을 미쳐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대부분 흡연자 아니 애연가였다. 강의실에서의 열강 중간 중간에 담배 연기를 내뿜던 송복 교수 역시 나의 이상이었다.

내가 따르던 분들이 우연하게 흡연자였는지 아니면 흡연자들만 선택적으로 존경하게 된 것인지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담배는 곧 '지성'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이런 담배의 고매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조류들이 등장하고 있어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때가 되면 주기적으로 일곤 했던 금연운동 정도야 참을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최근의 '웰빙' (well-being) 열풍은 나와 같은 흡연자들에게겐 심각한 타격이다.

'웰빙'의 관점에서 보면 흡연자들이야말로 본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건강불감증에 걸린 야만인들일 뿐이다. 국내의 모 기업은 사옥 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한 것도 모자라 사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서의 흡연까지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몇 년 후엔 그 기업 정문에 '에완전 출입금지' 표지 대신 '흡연자 출입금지'라는 표지가 붙지 말란 법도 없다. 이제 흡연자는 더 이상 고매한 지식인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해치며 순간의 쾌락을 좇는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최근 흡연에 대한 반감 또는 저항의 정도가 심해지고 '웰빙'이라는 건강 제일주의 생활 운동이 하나의 열풍을 형성하게 된 것은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그만큼 향상된 결과일 터이니 그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웰빙' 혹은 삶의 질이라는 목표가

특정한 가치만을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치와 의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운데 더불어 성취되는 일이란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질'만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연운동에 대항해서 조직화되었던 '흡연권 운동'은 단순히 담배를 자유롭게 피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요구라기보다는 일반 다수의 의견과 다른 소수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는 일종의 인권운동이다. 흡연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사회적 소수의 주장을 '웰빙'이라는 담론으로 굴복시키고 계몽해 보겠다는 노력은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다.

소수의 선택을 무시하고 심지어 때로는 짓밟고 성취한 다수의 선택이 과연 진정한 '웰빙'이고 올바른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흡연을 통해 이룩한 위대한 지성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면, '웰빙'을 통해 '몸짱'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흡연'을 통해 '맘짱'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백안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한 '웰빙'에는 '몸짱'과 '맘짱'이 공존해야 한다 ㉞

